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

River & Culture



아직도 푸르게 살아 흐르는 남강

김 석 봉 | 진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ksb@ktem.or.kr)

남강은 경상남도의 내륙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하여 흐른다. 경남 함양군 서상면 남덕유산에서 발원하여 산청군 생초면에서 임천강을 만나고, 진주시 대평면에서 덕천강을 만나 남강이라는 이름으로 흐른다. 임천강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과 전라남도 구례군 심원마을에서 발원하고 덕천강은 지리산 천왕봉을 발원지로 한다. 이처럼 남강은 경남, 전북, 전남 3개 도에 발원지를 가진 큰 강이다. 남강은 의령군 지정면 기강나루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낙동강의 제1지류이기도 하다.

남강은 그 유역이 대단히 넓다. 경상남도 의령군, 함안군,

진주시, 산청군, 함양군은 전체 면적이 남강의 집수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 경상남도 고성군, 함천군, 사천시, 하동군은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전라북도 남원시와 전라남도 구례군도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넓은 집수구역을 가지고 있다.

남강의 중상류 지역은 비교적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남덕유산과 지리산을 발원지로 하는 남강 본류, 위천, 임천강, 덕천강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과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 진주시를 기준으로 상류지역에 인구 5만 이상의 도시가 하나도 없고, 강우량이 많은 산간지역을 끼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남강은 진주시를 거치면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오염도를 보이게 된다. 남강댐에서 방류하는 하천유지수량이 나 발전용수만으로 진주시민이 사용하고 배출하는 방류수를 희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다. 남강 수질은 마산, 창원지역 100만 시민들의 상수원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강이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약 4km 하류에 마산, 창원지역 100만 시민들의 상수원수 취수원인 칠서취수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림 1〉 남강 발원지를 탐사하고, 생태를 체험하는 도보순례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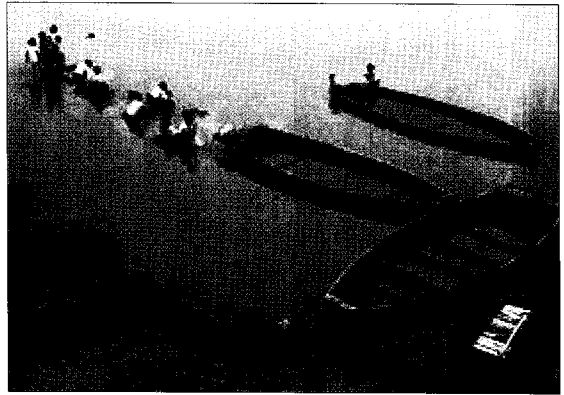
아직은 깨끗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남강

한국의 여느 강과 마찬가지로 남강은 역사와 문화를 넉넉히 품고 흐른다. 상류지역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촌 문화와 중류지역 진주를 중심으로 펼쳐진 농경문화, 하류지역 의령, 함안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수상교역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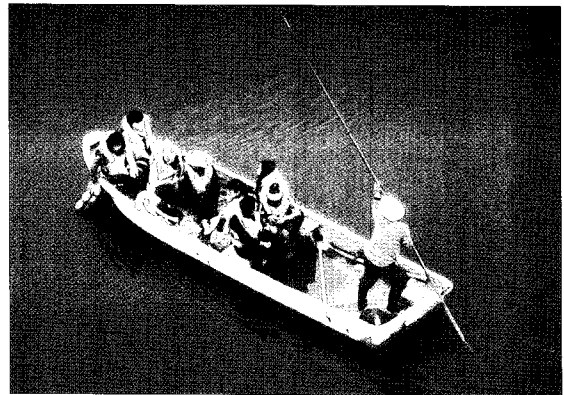
수환경 측면에서도 한국의 대형 강이 대부분 오염과 개발로 인해 수질, 수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었다지만 남강은 그래도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비록 댐과 하구둑 같은 몇몇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생태계의 단절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지만 다른 여느 강에 비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남강의 발원지가 남덕유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험준한 산악지역이고, 유역면적이 낙동강 전체 유역면적의 17%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수량 또한 풍부해서 수질과 수생태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림 2〉 남강너루의 옛 모습. '똥배' 라는 이름의 나룻배가 너루에 가득 찰 정도로 남강주변 나루터는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함께 했다.



〈그림 3〉 나룻배를 이용한 하천생태교육 프로그램

남강 수환경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 남강댐

진주의 고유음식 중 '남강장어'가 있다. 남강장어는 지리산 계곡에서 성장하여 산란기를 맞아 낙동강을 통해 바다로 가는 민물장어를 진주 나루터에서 잡아 만든 음식이다. 이런 지역의 고유음식은 남강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이었는데 요즘은 바닷장어를 남강장어로 포장해서 팔고 있는 실정이다.

남강댐은 지리산 계곡생태계와 내륙 하천생태계, 바다생태계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거대한 담수호인 진양호엔 외래종인 베스와 블루길이가 대량 서식하고, 댐 아래쪽까지 올라온 몇 마리 은어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가로막혔다. 지리산 계

곡에서 성장하다 산란기가 되면 멀리 태평양 심해까지 간다는 민물장어는 이제 자취를 감추었다.

남강댐은 남강 수질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시사철 풍부한 수량으로 흐르던 남강은 남강댐이 건설되면서부터 차차 변하기 시작했다. 남강댐이 건설되자 홍수가 조절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강둑을 높이 쌓았다. 강변에 드넓게 펼쳐졌던 모래밭이 자취를 감추었고, 울창하던 대밭도 사



(그림 4) 남강댐 건설 전 진주시민의 식수원이었던 남강

라졌다. 남강의 자정능력은 떨어지기 시작하여 도시화되어가는 진주시민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골프장으로부터 위협받는 남강 생태계와 수질

하천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이 골프장이다. 골프장은 하천수질을 크게 위협하는 인과 질소 성분을 가장 많이 쓰는 시설이다. 게다가 잔디관리용 농약마저 많이 쓰는 곳이어서 하천 수질을 위협하는 시설이다. 대규모 산지와 숲을 훼손해 건설하는 골프장이야말로 하천수질관리에는 최악의 요소다.



(그림 5) 골프장 개발계획들이 난무하는 남강 상류지역

남강 수계 내에 소재한 골프장이 아직 많은 편은 아니나 건설계획은 많다. 남강 최상류지역인 함양군은 3개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54홀, 36홀, 18홀짜리 각각 1곳을 골프장

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의령군도 칠곡골프장과 화정골프장 등 2곳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고성군은 남강의 지천인 양천강 수계 상류부에 9홀짜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

진주시와 남강유역 시민환경단체는 남강을 오염으로부터 지키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남강오염하천정화사업을 펼치면서 남강을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민환경단체는 남강을 체험하면서 강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가 추진한 남강오염하천정화사업은 소하천 생태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대형 하천에 적용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저수호안을 자연형으로 정비해 수질관리에 용이한 수목을 식재하고, 고수호안은 녹화사업을 했으며, 곳곳에 하천 생태교육장을 만들었다.



(그림 6) 진주의 민관학이 중심이 된 제6회 한국강의날 대회 장면-연인원 2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남강을 지키고 보전하려는 시민환경단체들의 노력 또한 남강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남강발원지탐사, 남강생태해설사양성교육, 하대동 자연섬지키기 등 남강을 대상으로 각종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진주YMCA도 남강의 지천인 가좌천살리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환경부에서는 사회적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강지킴이를 조직, 운영해 남강을 수질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강지킴이 활동은 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관리를 통해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의 이용

남강유역은 예로부터 농경문화가 발달했다. 지리산의 영양 물질이 퇴적되어 생긴 남강 주변 경작지는 토질이 좋아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진주시 대평면의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과 남강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던 가야국의 영화가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남강유역은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깊은 곳이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강을 이용한 각종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강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문화행사인 국제유등축제가 진주시에서 개최되며, 함양군은 물레방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강 유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강을 이용한 여가공간조성, 각종 상품개발에 적극적이다. 상류지역은 래프팅을 활성화하였고, 중류지역은 둔치를 개발하여 각종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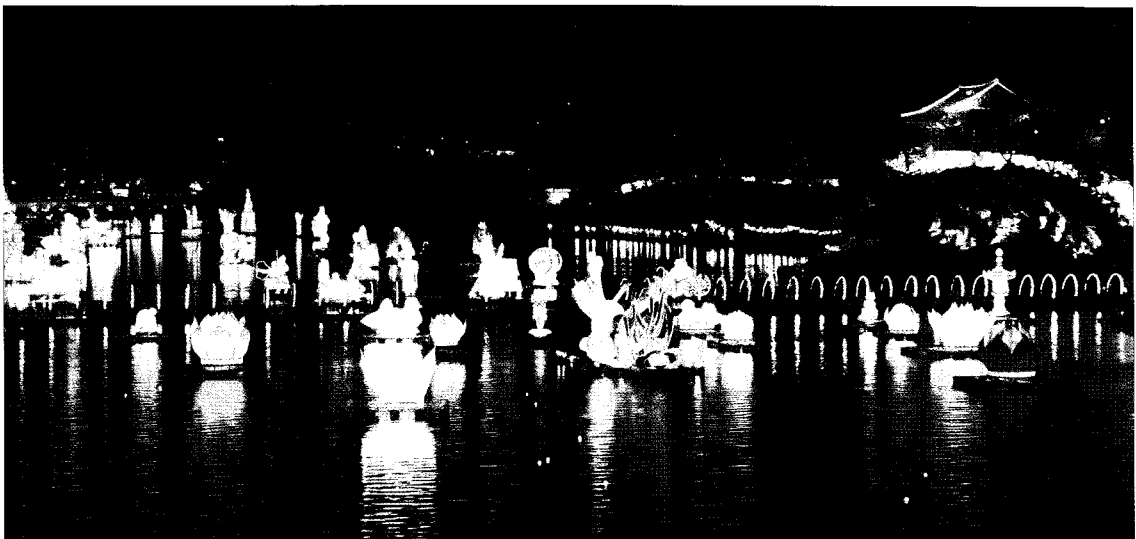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처럼 강은 그 이용에 따라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자연체험장으로서의 남강

남강은 낙동강의 지류이지만 한반도에서도 매우 큰 강이다. 이 강에 기대어 사는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은 남강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남강 수질관리, 수생태 복원, 남강가에 흠어져 있는 각종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 보존하는 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주의에 몰들어 강의 신음을 듣지 못했다. 강의 상처를 살피주지 못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미래를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강은 미래로 흐르는 희망이다. 그 희망을 위하여 살아 꿈틀거리며 흐르는 남강을 기대해 본다. 🌐



〈그림 8〉 매년 10월 열리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